정문연본 『永嘉證道歌』의 구결에 대하여*

박부자**

1. 서론

본고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된[1] 음독 구결 자료 『永嘉眞覺禪師證道歌』(이하 '『永嘉證道歌』'라 약칭[2])를 대상으로 그것의 자료적인 성격과 구결의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남권희(1997)에서 소개된 바가 있으나 아직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 본고는 8월 공동연구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BK21'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공동연구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1) 본래 南涯 안춘근 선생의 소장이었던 것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구입한 것이다. 기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춘근문고' 혹은 '남애장서'와 같은 형식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 수집도서로 구입된 다른 자료들과 함께 藏書閣 소장 자료들과는 별도로 '古書'로 분류되어 있다.

2) 표지서명은 "永嘉證道歌"이며 卷首題는 "永嘉眞覺禪師證道歌"라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책의 서명은 권수제를 따르므로 본고에서도 이 책의 서명은 "永嘉眞覺禪師證道歌"로 하되 표지서명을 따라 "永嘉證道歌"라 약칭하여 부르기로 한다. 이 책의 표지 서명은 붓으로 적어 넣은 것이다. 서명 아래 "南涯題簽"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표지 서명은 이전 소장자였던 南涯 선생께서 적어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않았다. 이에 본고는 남권희(1997)에 언급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永嘉證道歌』에 기입된 구결을 검토하여 이 자료가 갖는 국어사적인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永嘉證道歌』란 唐代의 永嘉眞覺禪師가 자기가 證得한 道의 要諦를 노래로 지어 부른 것이다.[3] 卷首題가 "永嘉眞覺禪師證道歌"이기는 하지만, 序의 서명 "南明泉頌永嘉證道歌"나 卷首에 "千頃山 沙門 法泉 繼頌"이라 적힌 것으로 보아 南明泉禪師가 永嘉眞覺禪師의 證道歌를 이어 부른 것임을 알 수 있다. 15세기 국어 자료의 하나인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이하 '『남명집언해』')이나 14세기 음독 구결 자료의 하나인 안동본 『南明泉和尙頌證道歌』(이하 '안동본 『남명집』')와 실린 詩句의 수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시구에서는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14세기에 구결이 기입된 것으로 생각되는 안동본 『남명집』과 이보다 약간 후대인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에 구결이 기입된 것으로 생각되는 본고의 『永嘉證道歌』, 그리고 15세기 언해 자료인 『남명집언해』는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비교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들이다.

2. 『永嘉證道歌』의 서지사항

이 문헌은 不分卷 1冊으로 된 전체 25장의 적은 분량으로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는 고려 후기의 목판본이다.[4] 版心은 白口로 되어 있다. 위

3) 永嘉禪師의 證道歌는 七言 혹은 六言으로 되어 있는 古詩이다. 永嘉禪師의 證道歌를 한 句 혹은 그 일부를 이어 七言四句體로 읊은 것이 南明禪師가 繼頌한 證道歌이다.

4) 남권희(1997:176)에서 이미 이 자료가 고려 13세기 후반의 전형적인 간행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본고에서 이 문헌을 "고려후기의 목판본"이라 한 것은 남권희(1997:176)의 이러한 논의에 따른 것이다. 『藏書閣古

에서 1/4 내려온 곳에 上黑魚尾가 있고, 그 아래로 '泉頌'이라는 版心題가 있다. 아래로부터 1/4 되는 곳에는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가로 15.1cm, 세로 26.3cm이며, 반곽은 가로 13cm, 세로 16.3cm로 10행 18자로 되어 있다. 이 책의 처음은 吳庸天이 熙寧 十年 丁巳(1077년) 七月에 쓴 序文 "南明泉頌永嘉證道歌 序"로 시작된다.[5]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영가선사의 증도가와 남명선사의 계송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 隔字를 사용했다.[6]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자료에 실린 詩句의 수는 안동본『남명집』이나『남명집언해』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 책의 서문에 "南明禪師泉公이 證道歌를 다시 頌하여 三百二十篇을 이루었다[7]"는 내용으로 보아 이 자료에 실릴 詩句는 전체 320수이어야 한다. 안동본『남명집』과『남명집언해』는 이러한 序의 내용처럼 모두 320수인 데 반해『永嘉證道歌』에 실린 詩句의 수는 전체 240수뿐이다. 안동본『남명집』이나『남명집언해』와 처음부터 240수까지는 모두 동일하고 뒤 80수가 없는 상태이다. 표지의 서명을 南涯 선생이 필사해 넣은 것이나 표지 쪽의 배접상태로 보아 80수가 떨어져 나간 상태의 것을 다시 線裝한 것으로 보인다.[8] 뒷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므로 卷末題나 안동본『남명집』에 있는 後序, 刊記와 관련된 기록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書目錄』에 제시되어 있는 이 자료의 서지 사항에는 "中國木版本[萬曆以前]"으로 되어 있으나 구결토의 기입상태를 보아서도 이 자료의 간행시기가 "萬曆"을 거론할 정도로까지 내려갈 수는 없을 듯하다.

5) <남명집언해>에는 序에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 序'라 되어 있으며, 안동본 <남명집>의 序에는 '南明泉和尙頌證道歌一部 幷序'라 되어 있다.

6) 안동본 <남명집>에서도 영가선사의 증도가와 남명선사의 계송 부분을 구별하는 데에 隔字를 사용했는데, <남명집언해>에서는 영가선사의 증도가와 남명선사의 계송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7) 南明禪師泉公 昔居千頃 復頌證道歌 成三百二十篇 <영가 序b,5-7>

8) 이 자료가 再裝되었다는 것은 정재영 선생님께서 공동연구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 있다. 이 점 정재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 문헌에는 다음 예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誤字로 판단되는 글자 몇몇이 보인다.

(1)가. 擧目 已無依倚處 金剛 門外 尙貪瞋<영가 2a,5-6>
나. 擧目 已無依倚處 金剛 門外 尙含瞋<안동·남명4a,2-3>
다. 擧目애 已無依倚處ᄒᆞ나 金剛이 門外예 尙含瞋이로다 <남명해 8a>

(2)가. 六代傳衣 天下問 表法 聊將記宗旨 <영가 22a,1-2>
나. 六代傳衣 天下聞 表法 聊將記宗旨 <안동·남명 28b,6-7>
다. 六代傳衣를 天下聞ᄒᆞᄂᆞ니 表法ᄒᆞ야 聊將記宗旨ᄒᆞ시니라 <남명해 하,25b>

(3)가. 二十空門 无不着 眞妄 悠ᄌᆞ 病已除 <영가 22b,1-2>
나. 二十空門 元不著 眞妄 悠悠 病已除 <안동·남명 29a,8-29b,1>
다. 二十空門에 元不着ᄒᆞ니 眞妄이 悠悠ᄒᆞ야 病已除ᄒᆞ도다 <남명해 하,28a>

(1)에서 볼 수 있듯이 『永嘉證道歌』에는 '貪'으로 쓰여 있지만 안동본 『남명집』이나 『남명집언해』의 '含'의 잘못이다. (2)와 (3)에서도 각각 '聞, 元'이어야 할 것이 『永嘉證道歌』에서는 '問, 无'로 잘못 되어 있다. 이러한 誤字 이외에 이 문헌은 안동본 『남명집』이나 『남명집언해』와 그 字體를 달리 하고 있음도 확인된다.[9]

마지막으로 서지사항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永嘉證道歌』에 적힌 글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두어야 할 듯하다. 欄上과 欄下 혹은 行間, 行의 빈 자리에 기사자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글들을 적어 놓았다. 때로는 漢字 자체에 대한 音과 釋을 적기도 하였고 때로는 어려

9) <永嘉證道歌>에서 사용되고 있는 原文의 한자가 안동본 <남명집>이나 <남명집언해>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에서 '>(부등호)'는 두 한자 간의 사용빈도상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운 詩句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놓기도 하였다. 이들은 그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서『남명집언해』의 협주나 주해와 유사하다.

(4)가. 百獸 聞之ㅁ 皆腦裂ㅅᄒᆞᄒᆞ、 還如魔衆ㅣ 聞眞說ㅅᄉᆞᆨㅣ(**无畏說喪膽魂魄之義也**) 愁怖歸來ᄒᆞ 失舊容ㅅᄒᆞ{ㅁ}[10](**失却本來面目之義也**) 不知本自无生滅ㅣᄉᆞᆫᄒᆞ、(**諸人不會无生之旨**) <영가 9b, 5-6>[11]

나. 眞說ᄋᆞᆫ 저ᄒᆞᆷ 업슨 마리니 魔衆이 저ᄒᆞᆷ 업슨 마ᄅᆞᆯ 듣ᄌᆞᆸ고 膽

	永嘉證道歌	안동본 남명집	남명집 언해
개	个	箇	箇
검	釰	釰, 劒	劒
득	得 > 㝵	得	得
만	万 > 萬	萬	萬
무	无 > 無	無	無
보	宝	寶	寶
분	分	紛	紛
소	埽	掃	掃
쇄	洒	灑	灑
수	湏 > 須	湏	須
수	綉	繡	繡
쌍	双	雙	雙

	永嘉證道歌	안동본 남명집	남명집 언해
웅	熊	熊	熊
원	援	猿	猿
이	尒	爾	爾
인	卬	印	印
인	寅	寅	寅
잡	帀	帀	匝
지	只	祇	只
진	珍	珍	珍
착	着 >著	著	著
체	身本, 體	體	體
칭	称	稱	稱
호	号	號	號

10) '{ }'는 좌토인 경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永嘉證道歌>에는 좌토와 우토, 그리고 중간에 달린 토도 보이고 있는데 중간에 달린 토의 경우는 '[ ]'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토가 기입된 자리뿐 아니라 먹의 농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토가 있는데, 먹의 농도가 옅은 토의 경우는 음영으로 처리하여 따로 표시해 두었다.

11) 자료의 출전 제시는 '문헌약호, 권수, 쪽수, 줄수'의 순서로 하되 <永嘉證道歌>와 같이 單券일 경우는 권수를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예를 들면 예문의 출전 표시가 '<영가 1a:1>'과 같이 되어 있다면, 이는 정문연본 <永嘉證道歌>의 첫째장 앞면의 첫째 줄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헌 약호는 '정문연본 <永嘉證道歌>'의 경우 '<영가>'로, '안동본 <남명집>'은 '<안동·남명>'으로, '<남명집언해>'는 '<남명해>'로 각각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일후며 넋 일후믈 免티 몯ᄒᆞ니라 三四句ᄂᆞᆫ 天魔ㅣ 化ᄒᆞ야 이ᄃᆞᆫ 겨지비 ᄃᆞ외야 世尊ᄋᆞᆯ 惱亂호려커늘 世尊이 거우루 주신대 魔女ㅣ 거우루 보니 늘근 할미 ᄃᆞ외얫거늘 붓그려 믈러가니라 오란 양ᄌᆞ 일타 호ᄆᆞᆫ 本來 面目ᄋᆞᆯ 일흘 시라 <남명해 상,47b>

(4가)에서 괄호로 묶은 부분이 해당 句의 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풀이해 넣은 것이고, (4나)는 언해자의 주해 부분이다. '无畏說喪膽魂魄之義也(두려움 없는 말은 膽과 魂魄을 잃게 한다는 뜻이다)'는 (4나)의 '眞說은……몯ᄒᆞ니라'와 같은 의미의 주해이다. '失却本來面目之義也'는 '오란 양ᄌᆞ 일타 호ᄆᆞᆫ 本來 面目ᄋᆞᆯ 일흘 시라'와 바로 대응된다. 세 번째 '諸人不會无生之旨'는 '本自无生滅'이 "모든 사람이 無生에 들지 못한다는 뜻"임을 풀이한 것이다.

3. 『永嘉證道歌』의 구결에 대한 검토

본 장에서는 『永嘉證道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자들을 살펴 이 문헌이 국어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 문헌에 기입된 구결토의 성격을 알아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3.1은 바로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할애된다. 이 문헌은 구결토가 기입된 양상이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대해 본고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다. 3.1의 논의를 바탕으로 3.2에서는 이 문헌에 나타난 구결자를 목록화하고 이들 구결자의 쓰임에 대해 언급해 두려고 한다. 3.3은 이 문헌에 기입된 구결토를 검토하되 原吐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갈 것이다. 3장을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永嘉證道歌』의 구결이 기입된 시기나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언어의 시기가 자연스럽

게 추정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진다.

3.1. 구결토의 기입상태

이 문헌의 구결토는 細筆로 깨끗하게 기입되었다. 잘못 현토된 곳도 거의 없이[12] 비교적 정확하게 구결토를 기입한 편이다. 오른쪽에 기입된 原吐 이외에 좌토와 중간토, 그리고 좀 투박하게 쓰여진 먹이 흐린 구결토도 보인다.[13] 좌토와 중간토의 경우 구결자나 구결토의 목록에서 先後를 드러낼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후의 논의에서 따로 구별하지 않고 '좌토'에 포함시켜 다룰 것이다. 다만 투박하고 먹이 흐린 토는 좌토와 같이 취급하지 못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5)가. 寂滅性中ᄀᆞᆫ 莫問覓ᄒᆞᄂᆞᆫᄒᆡ{ᄒᆡ} 坐斷千峰ᄂᆞᆫᄒᆡ 過者難ᄒᆡ{ᄂᆞᆫᄒᆡ} <영가 3a,7>

나. 寂滅性中ᄋᆞᆫᄀᆞ 莫問覓ᄂᆞᆫᄒᆡ。坐斷千峰ᄂᆞᆫᄒᆡ 過者難ᄂᆞᆫᄒᆡ <안동·남명 5a,8>

다. 寂滅性中엔 莫問覓이니 坐斷千峰ᄒᆞ니 過者難ᄒᆞ도다 <남명해 상 14a-b>

(6)가. 調古神淸ᄂᆞᆫ 風自高ᄒᆞᄂᆞᆫᄒᆡ{ᄂᆞᆫᄒᆡ} 若涉絲毫ᄂᆞᆫᄃᆞ 未相許ᄂᆞᆫᄇᆡ

---

12) 다음 예문의 'ᄀᆞᆷᄯᅳᆯ'이 '印' 뒤에 현토된 것을 제외하면 이 자료에서는 구결토가 잘못 달린 곳은 없다.

(가) 八解六通{ᄀᆞ} 心地印ᄂᆞᆫᄒᆡ{ᄀᆞᆷᄯᅳᆯ} 泥水空三ᄋᆞᆫ 用 莫齊ᄂᆞᆫᄒᆡ·{ᄂᆞᆫᄒᆡ} <영가 7b,1-2>

(나) 八解六通은 心地옛 印이니 泥水空三 用이 莫齊ᄒᆞ도다 <남명해 상, 35a>

(가)의 밑줄 친 좌토의 'ᄀᆞᆷᄯᅳᆯ'은 '心地'에 현토되어야 하는 구결토이다.

13) 남권희(1997:177)에서 "굵게 쓰여진" 구결토라는 것은 아마도 먹의 농도가 옅은 구결토를 이르는 것인 듯 하다. "굵게 쓰여진" 구결토가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 <영가 6a,9>

나. 調古神淸ᄉᆞᆷ 風自高ᄉᆞᄒᆡ/ᄉᆞᄉᆞᆫᄒᆡ 若涉絲毫ᄉᆞᆫ大 未相許ᄉᆞᄒᆞᄉᆞ <안동·남명9a,5>

다. 調古神淸ᄒᆞ야 風自高ᄒᆞ니 若涉絲毫ᄒᆞ면 未相許ᄒᆞ리라 <남명해 상,29b>

(5가)는 원토 'ᄉᆞᆷ' 다음에 투박하게 흐린 먹으로 'ㄱ'이 첨기된 것이다. 『永嘉證道歌』는 안동본 『남명집』처럼 기존의 토를 지우고 개토한 흔적이나 위에 덧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개토라고 해봐야 (5)와 같이 기존의 토에 첨기해 넣는 수준의 것이다. (6가)도 원토에 첨기된 것이기는 하나 (5가)와는 좀 다르다. 음독구결 자료에서 동사어간 'ᄉᆞ-'나 계사어간 'ᄉᆞᆫ-'가 생략되고 표기되는 예가 흔한데, (6가)도 애초의 기사자는 동사어간 'ᄉᆞ-'를 생략하고 'ㅐ、'만을 적었다. 이후 다음 기사자가 원토 'ㅐ、' 위에 'ᄉᆞ'를 덧쓴 것이다.[14]

투박하게 쓰여진 먹이 흐린 구결토의 첨기가 원토와의 사이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처럼 좌토에도 먹이 흐린 토가 첨기되었다.

---

14) 이 문헌에서 원토는 글자의 바로 아래 오른쪽이나 글자의 오른쪽 끝 부분에 기입되는데(가), 'ᄉᆞㅐ、'의 'ᄉᆞ'는 이런 일반적인 양상과 차이를 보여 글자의 오른쪽 상반부에 위치한다(나). 반면 'ㅐ、'는 글자의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ᄉᆞ'가 나중에 첨기되었음을 그것의 위치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가) (나)



<영가 序a,5> <영가 22a,1> <영가 6a,9>

(7)가. 一夜ᄀᆞ 曹溪水 逆流ᄂᆞᆞᄉᆞᆫ{ㅿㄴ} 平人 无限隨波浪ᄂᆞᄒᆞᆞ <영가 3b,5-6>

나. 一夜 曹溪水ㅿᄋᆞᆯ 逆流ᄂᆞᄀᆞᄆᆞ 平人ㄱ/ㅅ 無限隨波浪ᄂᆞᄒᆞᄉᆞ <안동·남명 5b,8-6a,1>

다. 一夜애 曹溪水逆流ᄒᆞᆫ대 平人이 無限隨波浪ᄒᆞ니라 <남명해 상 16a>

원토를 기입한 기사자는 어말어미를 생략한 채 'ㅿ'만을 표기했다. 이를 후대토의 기사자가 '-거늘'이 결합될 문맥으로 파악함에 따라 'ㅿ' 아래 'ㄴ'을 첨기한 것이다. 이는 먹이 흐린 구결토가 원토 뿐만 아니라 좌토보다도 후대의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15]

3.2. 구결자의 목록

앞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永嘉證道歌』에 기입된 구결이 그것의 기입상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이 문헌에 보이는 구결자를 목록화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미 확인되었듯이 투박하고 먹이 흐린 구결토만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후대의 것이므로 구결자를 목록화하는 데 있어서 이 후대토는 구별하여 제시할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음은 각 구결자의 대표음이다.

	原吐	後代吐
1) 가	ᄀᆞ	
2) 거	ㅿ, ㅿㄴ	ㅿ
3) 고	ㅁ, ᄀᆞ	ㅁ
4) 온/은	ㄱ	ㄱ

15) 이하의 논의에서 '후대토'는 투박한 필체로 쓰인 먹이 흐린 구결토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5) ᄂᆞ	𠆢	𠆢
6) ᄂᆞᆯ	斤	
7) 나	乃, 㐄	乃
8) 노	又	又
9) 뇨		了
10) 니	𠆢	𠆢
11) ᄃᆞ	入, 朩	入
12) 다	丨	丨
13) 대	大	
14) ᄃᆡ	厶	厶
15) 더	力	力
16) 뎌	𠂇	
17) 도	刀	
18) 두	斗	斗
19) 디	土	
20) ᄋᆞᆯ/을	乚, 乙	乚, 乙
21) 라	丶, 丷	丶
22) 리	刂	刂
23) 마	广	
24) 며	分, 久	
25) 면	𠂉, 面	𠂉
26) ᄇᆞ	火	
27) ㅅ	七	七, 叱
28) ᄉᆞ	士	
29) ᅀᅡ/사	氵	氵
30) 샤	𠆢	
31) 시	𠂉	𠂉, 乀
32) 아	氵, 阝	氵
33) 어	才	才, 今

34) 여	ㅗ	
35) 오	午, 五	午
36) 와	ㅏ	ㅏ
37) 의	ㅋ	ㅋ
38) 이	ㅣ	ㅣ
39) 인	印	
40) 자[16]	上	
41) ᄒᆞ	ㅅ	ㅅ
42) 히/긔	十	
43) 호	ㅅ	ㅅ
44) 히	ㅎ	ㅎ
	<총 53개>	<총 33개>

『永嘉證道歌』에서 원토에 사용된 구결자는 총 53자이고, 후대토는 총 33자의 구결자가 쓰였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하의 논의는 원토를 대상으로 한다.

'거'는 'ㄷ'와 'ㄸ'로 표기되었다. 이 문헌에 보이는 'ㄸ'를 과연 새로운 구결자로 설정할 수 있을지 혹 단순히 필체상의 문제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좀더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ㄷ'와 'ㄸ'의 표기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이 둘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후대토에서는 'ㄷ'만이 확인된다.

'斤'은 '口斤, ㄴㅣ斤'과 같은 구성에서만 보이던 구결자로 이 문헌에서는 '口'와 결합한 구성에서 1회 나타날 뿐이다. '口斤'은 박진호(1996:77)에서 의고성을 띤 구결토로 제시된 바 있다.

---

16) 'ㅗ'를 '자'로 읽은 것은 박진호(1998:137)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박진호(1998:137)에서는『慈悲道場懺法』에서 'ㅅㄹㅗ十'가 'ㅅㄹ尺十'로도 나타남을 지적한 남권희(1993:20)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ㅗ'가 '자'로 읽힌 좋은 증거라고 하였다.

'ㆆ'는 [선어말어미 '-ᄂᆞ-' + 선어말어미 '-오-']의 '-노-'나 조사 '로', 감동법의 '-도-'가 계사어간 뒤에서 실현된 '-로-'를 표기한 것이다. 일사본과 가람본 『능엄경』이나 『범망경』 등 다른 구결자료에서는 '以'에서 온 'ᄴ, ᄽ'로써 '로'를 표기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결국 이들 자료에서는 조사 '로'나 계사 어간 다음에 결합되는 감동법의 '-로-'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ㆆ' 혹은 'ᄴ, ᄽ'를 사용하는 이중체계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 '로'의 표기는 모두 'ㆆ'로 통일되어 나타난다.

(8)가. ᄂᆞᄀᆞ ㅅㆆ<영가 12b,9>
나. ᄂᆞㆆㅣ<영가 11a,9>, ᄂᆞㆆᄐᆞ<영가 24a,2>

(8가)는 조사 '로'에 대한 표기를 보인 것이며 (8나)는 계사어간 'ᄂᆞ-'에 결합된 감동법의 '-로-, -롯-'의 '로'를 'ㆆ'로 표기한 것이다. (8)은 이들의 표기에 'ᄴ, ᄽ'가 함께 쓰였던 이중적인 표기 체계에서 단일화되었음을 보여준다.[17] 후대토의 경우도 'ᄴ, ᄽ'로 표기된 바는 없고 모두 'ㆆ'로 표기하였다.

의존명사 'ᄃᆞ'의 표기는 구결자 'ㅅ'를 쓰기도 하고 'ㅱ'를 쓰기도 하였으나 'ㅅ'로 표기된 예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ㅅ'가 쓰인 예로는 'ㅅᄂᆞᆫㅣ、(19b,10), ᄂᆞᄀᆞ ㅅㆆ(12b,9), ᄂᆞㆆᄀᆞ ㅅᄀᆞ(15b,7)'이 있으며 'ㅱ'가 쓰인 예로는 'ㅱᄂᆞᆫㅣ、(23b,6), ᄂᆞᄀᆞ ㅱㆆ(21b,4)'가 있다. 이들은 각각 조사 '올, 로'와 통합한 의존명사 'ᄃᆞ'의 표기를 반영하고 있다.

---

17) 다음 예에서 'ᄽ'로 표기된 예를 단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가) 金剛ᄂᆞ 門外ᄋᆞᆯ 尙貪瞋ᄂᆞᆫᄒᆡ{ᄽㅣ} <영가 2a,6>
(나) 金剛ᄂᆞ 門外ᄋᆞᆯ 尙含瞋ᄂᆞᆫᄒᆡ<안동·남명 4a,3>
(다) 金剛이 門外예 尙含瞋이로다 <남명해 8a>
그러나 이는 좌토의 것이므로 원토 중에 'ᄽ'로 표기된 예가 없이 모두 'ㆆ'로 통일되어 표기된다는 논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문헌에서 구결자 'ㅸ'는 그리 많이 쓰이지 않다. 'ᄃᆞ'의 표기와 관련되어 쓰인 총 출현횟수 5회를 제외하면 'ㅸ'는 다른 형태소를 표기하는 데 쓰인 적이 없다. 반면 'ㅅ'는 'ᄃᆞ'와 관련된 표기 이외에 연결어미 '-ᄃᆞᆫ'(ᄀᆞᆺㅅ(20b,5))[18]이나 선어말어미 '-ᄃᆞ/ᄃᆞ-'(ᄉᆞᆺㅅㅌᆞ(20a,8))의 표기에도 사용되었다.[19] 이는 이 문헌보다 이른 시기의 다른 음독구결자료들에서 의존명사 'ᄃᆞ'나 연결어미 '-ᄃᆞᆫ', 그리고 선어말어미 '-ᄃᆞ/ᄃᆞ-'가 'ㅸ'와 'ㅅ' 두 구결자에 의해 함께 표기되었으며 그 사용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과 비교된다. 『永嘉證道歌』에서 구결자 'ㅸ'의 사용이 제한적인 것은 이중의 표기체계를 지녔던 'ᄃᆞ'의 표기가 'ㅅ'로 단일화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후대토에서는 'ㅸ'가 전혀 보이지 않고 'ㅅ'로만 표기된 것도 표기의 단일화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ㄴ, ㄹ'은 조사 'ᄅᆞ/ᄋᆞᆯ/ᄅᆞᆯ'과 동명사어미 '-ᄅᆞ', 연결어미 '-ᄂᆞᆯ(혹은 'ᄂᆞᆯ'의 'ᄅᆞ')' 등의 표기에 두루 사용되었다. 이외에 '으로'와 '으란'을 각각 'ㄹᄒᆞ(2a,10)'와 'ㄴᆞㄱ(17a,3)'[20]으로 표기한 예들이 있는데, 이는 매개모음과 다음 음절의 첫 음 'ᄅᆞ'을 첨기하는 데에 'ㄴ, ㄹ'을 쓴 것이다.[21] '으로'와 '으란'은 (9)와 같이 매개모음 없이 'ᄒᆞ'와 'ᆞㄱ'으로 표기되는

18) 연결어미 '-ᄃᆞᆫ'도 기원적으로 의존명사 'ᄃᆞ'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 'ᄀᆞᆺㅅ'의 '-ㅅ[ᄃᆞᆫ]'이 공시적으로 통사적 구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될 수 없는 하나의 연결어미로 분석되기 때문에 'ᄃᆞ'와 관련된 표기와 구별하였다.

19)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더-'와 관련되는 선어말어미의 경우 물론 '-더-'를 표기한 구결자 'ㅿ'도 확인된다.

20) 한편 김두찬(1987)에서는 'ㄹᆞㄱ'을 '-을란'으로 읽으면서 이것이 기원적으로 격조사 '-을'과 보조사 '-ᄋᆞᆫ'의 결합을 갖는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ᆞㄱ[란]'의 '안'을 보조사 'ᄋᆞᆫ'과 관련지을 때 'ㆍ'와 'ㅏ'의 전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21) 14세기 음독구결자료인 <범망경>에 'ㄴᆞᄈᆞ, ㄴᆞᄉᆞㄱ'으로 표기된 구결토가 있음이 이미 정재영(1996:141)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것이 더 일반적이다.

(9)가. 而昧者不知ᄂᆞᆯ 乃以色ᄋᆞᆫ 見如來ᄂᆞᆺ 以音聲ᄋᆞᆫ 求如來ᄂᆞᄒᆞᄂᆞ 豈不謬哉ㅣᄭᅡ <영가 序b,9-10>

나. 園裏花枝ㆍㄱ{乙} 任短長ᄒᆞ{ᄒᆞᄂᆞ} 靑帝春風ㄱ 還一樣ᄂᆞ、<영가 4b,7-8>

'라'는 'ㆍ' 혹은 'ㅅ'로 표기되었는데, 'ㅅ'로 표기된 것은 한 예에 불과하고[22] 나머지는 모두 'ㆍ'로 표기되었다. 14세기 중엽 구결자의 사용에 큰 변화가 있어 구결자가 'ㅅ>ㆍ, ᄭᅡ>ㅣ, ᄀᆞ>ᄀᆞᆺ, ᄉᆞ>ᄉᆞᆺ'의 변화를 겪어 'ㆍ, ㅣ, ᄀᆞᆺ, ᄉᆞᆺ'가 14세기 후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이승재(1993)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이 문헌에서 'ㆍ'의 사용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은 『永嘉證道歌』의 구결토 기입시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의 표기도 이 문헌의 구결토 기입시기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문헌은 '리'의 표기에 'ㅣ'만이 사용되었을 뿐 'ᄭᅡ'는 쓰인 바가 없다. 이는 'ㅣ'와 'ᄭᅡ'가 함께 나타나는 안동본 『남명집』의 표기와 비교

22) 구결자 'ㅅ'가 표기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若將瓮響ᄂᆞᆯ 作鐘聲ㅅ 不獨无實ㅅᄋᆞᆫ 兼自誑ᄂᆞ、 <영가 16b,2>

(나) 若將瓮響ᄂᆞᄒᆞᄂᆞ 作鐘聲ᄂᆞᆺ 不獨無實ᄂᆞᆺ、 兼自誑ᄂᆞㅣ、 <안동·남명 21b,8-22a,1>

(다) 若將瓮響ᄒᆞ야 作鐘聲ᄒᆞ면 不獨無實이라 兼自誑이리라 <남명해상,80a>

필자는 (가)의 'ㅅ'를 처음에는 'ㅅㆍ'로 판독하였다. 기입된 구결토를 한 글자로 보기에 'ㆍ'가 'ㅅ'와 좀 떨어져서 아래 기입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문헌에서 종결어미 '-라'는 모두 'ㆍ'로만 표기되고 있어 (가)의 밑줄 친 구결토를 'ㅅ'로 파악할 경우 이것이 유일예가 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ㅅㆍ'로 판독할 경우에도 'ㅅ'가 유일예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문맥상 'ㅅㆍ'보다는 'ㅅ'로 읽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ㅅ'로 읽고 목록에 제시하였다.

될 만하다.

(10)가. 若入荒田ㅅ ᄒᆞ 隨手得ㅊ 不勞移步ㅅ ᄒᆞ 便還家ㅅ ᄇᆡ、 <영가 16a,3-4>

나. 若入荒田ㅅ ᄒᆞ 隨手得ㅅㄱ 不勞移步ㅅ ᄒᆞ 便還家ㅅ ᄒᆞᆫ <안동・남명 21a.8-21b,1>

(11)가. 曾看江上ᄒᆞ 弄潮人ㅣㄴ 未聞愛水ㅅ ᄇᆡ 嫌波浪ㅈㅅ、 <영가 14b,7-8>

나. 曾看江上ᄒᆞ 弄潮人ㅣㄱㅁㄱ 未聞愛水ㅅ ᄒᆞᆫ 嫌波浪ㅈㅅ <안동・남명 19b,6-7>

(12)가. 莫把捉ㅣ ᄇᆡㄴ 翦ㅈ規ㅈ大 成大錯ㅅ ᄇᆡ、 <영가 4a,5-6>

나. 莫把捉ㅣ ᄇᆡㄴ 翦翦規規大 成大錯ㅅ ᄇᆡ、 <안동・남명 6b,2-3>

(10)은『永嘉證道歌』와 안동본『남명집』에서 선어말어미 '-리-'의 표기에 쓰인 구결자를 대조해 보인 것이다.『永嘉證道歌』에는 'ㅢ'가, 안동본『남명집』에는 'ᄒᆞᆫ'가 쓰여 구결자에 차이를 보인다. (11)은 [ᄒᆞ- + -ㄹ + 이(형식명사)]의 통사적 구성을 갖는 'ᄒᆞ리'의 표기를 보인 것이다. (10)과 마찬가지로『永嘉證道歌』는 'ㅢ'로, 안동본『남명집』은 'ᄒᆞᆫ'로 표기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안동본『남명집』는 'ㅢ'의 표기도 드물지 않게 확인되는데, (12)의 예가 그것이다. 이는『永嘉證道歌』는 '리'의 표기에 모두 'ㅢ'만이 사용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연결어미 '-며'는 'ᄀᆞ'외에 'ᄀᆞᆺ'로 기입된 예들도 보인다. 다만 'ᄀᆞ'가 사용된 것이 16회, 'ᄀᆞᆺ'가 사용된 것이 26회로 구결자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예문 (13가)의 밑줄친 부분은 안동본『남명집』이나『남명집언해』와의 비교에서 구결자 '火'이 표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표기 상태가 불분명하다.

(13)가. 唯有華山ᄀᆞ 潘處士火ᄂᆞᆫ(?) 途中ᄀᆞ 吟望ᄉᆞᆫᄀᆞ 倒騎驢ᄉᆞᆫᄒᆡ、 <영가 19a,3-4>

나. 唯有華山 潘處士火ᄂᆞᆫ 途中ᄀᆞ 吟望 倒騎驢ᄉᆞᆫᄃᆡ <안동·남명 25a,4-5>

다. 唯有華山 潘處士옷 途中에 吟望 倒騎驢ᄒᆞ니라<남명해 하, 12b>

(13가)에서 '潘處士'에 달린 구결토는 '火'의 아래 오른쪽 획이 본 구결자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 마치 'ᄂᆞᆫ' 위에 점이 찍혀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ᄂᆞᆫ'의 표기도 이 자료에 기입된 다른 'ᄂᆞᆫ' 표기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표기 상태로만 본다면 '火ᄂᆞᆫ'으로의 추정이 의심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안동본 『남명집』의 '火ᄂᆞᆫ'이나 『남명집언해』의 '옷'과의 대응을 고려한다면 (13가)의 구결토도 '火ᄂᆞᆫ'으로 파악하여 'ᄇᆞᆫ'음의 표기에 쓰인 구결자 '火'를 이 문헌의 구결자 목록에 등재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문헌에서 'ᄉᆞᆫ'는 'ᄉᆞ'로만 표기된다. 안동본 『남명집』에서 'ᄉᆞᆫ'가 'ᄉᆞᆫ'로만 표기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14)가. 我聞ᄂᆞ、 如來ᄇᆞᆨ 善護念諸菩薩ᄉᆞᄉᆞᄆᆞ 以心ᄋᆞᄉᆞᄆᆞᆫᄀᆞ <영가 序a,2-3>

나. 我聞ᄂᆞ、 如來 善護念諸菩薩ᄉᆞᆫᄉᆞᆷ 以心ᄋᆞᄉᆞᄆᆞᆫᄀᆞ <안동·남명 1a,2-3>

(15)가. 熊耳老師ᄉᆞ 曾漏洩、ᄉᆞᄉᆞ 獨携隻履ᄉᆞᆫᄀᆞ 到西天ᄉᆞᄉᆞᄆᆞᆫᄃᆡ <영가 10b,1-2>

나. 熊耳老師ᄉᆞ 曾漏洩ᄉᆞᆫ 獨携隻履ᄉᆞᆫᄀᆞ 到西天ᄉᆞᄉᆞᄆᆞᆫᄃᆡ <안동·남명 14a,8-14b,1>

[ᄒᆞ-+-시-+-오ᄃᆡ]의 구성으로 분석되는 'ᄒᆞ샤ᄃᆡ'의 표기에서 (14가)

는 '샤'에 대해 'ㅅ'를, (15나)는 'ᄉᆞ'를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이는 존칭의 선어말어미 '-시-'에 부동사어미 '-아'가 결합되어 '-샤'로 실현된 경우도 마찬가지여서『永嘉證道歌』는 'ㅅ'로, 안동본『남명집』은 'ᄉᆞ'로 표기했음이 비교된다.

원토에서 '아'는 구결자 'ㅇ'와 'ㄸ'로 표기되었지만 이 둘은 용법상의 구분이 분명하였다. 'ㅇ'는 처격조사나 동사어간 'ᄒᆞ-'의 활용형으로 연결어미 '-아'나 선어말어미 '-아-'를 표기한 반면, 'ㄸ'는 의문의 첨사 '-아'를 표기하는 데에만 쓰였다.[23]

'ㅗ'는 'ㅣㅗㅌㅏ(1b,4), ㅗㄱㅜ(13b,10), ㅗㄱㅜㄱㄱ(序a,6), ㅗㅌ(3b,4), ㅗㅣ(10b,8), ㅗㅌㅣ(10a,2)' 등 선어말어미 '-어-'의 표기에 쓰인 구결자이다. 원토에서는 'ㅗ'만을 보이지만 좌토에서 선어말어미 '-어-'가 'ᄉᆞ'로 표기된 'ᄉᆞㅌ(5a,10)'의 예가 1회 확인된다. 오히려 후대토에서 'ㅗ'와 'ᄉᆞ'가 둘 다 확인되는데, 각각 5회, 3회씩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기의 보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후대토 가운데 원토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구결자로 'ㆆ'가 있다. 原字는 '了'이다. 구결자 'ㆆ'는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의문법어미 '-뇨'의 표기에 한 번 쓰인 것이 전부이다.[24]

---

23) (가)는 처격조사 '-ㅇ'와 연결어미 '-ㅇ'이며 (나)는 선어말어미 '-ㅇ-'이다. (다)는 의문의 첨사 '-ㄸ'의 표기를 보인 것이다.

(가) 唯有華山ㅇ 潘處士火ㄴ(?) 途中ㅇ 吟望ㅅᄋᆞㅇ 倒騎驢ㅅᄒᆞ、 <영가 19a, 3-4>

(나) 宝刀无刃ㅅᄒᆞ 證持來ㅗㅣ 기爲歌王ㄴ{ㄨ} 悲不已ㅅᄋᆞㅇㄴᄒᆞᄒᆞ <영가 11a,3-4>

(다) 若了一多ㅅㄱㅗㅜ 非一異ㅌ 一異无來ㅅᄒᆞ 會得麽ㄸ <영가 18a, 9-10>

24) 본고에서는 장윤희(1998)의 논의에 의거하여 의문법어미 '-니오', '-뇨'를 하나의 형태소로 간주한다.

(16)가. 何事乂 寒山ㄱ 愛遠遊ソ3 如今3 忘却來時路、ソ3ヒ午{、ソ3乀了} <영가 6a, 5-6>
　나. 何事乂 寒山ㄱ 愛遠遊ソ3 如今 忘却來時路ソ3ヒ午 <안동·남명 9a,2-3>
　다. 何事로 寒山ᄋᆞᆫ 愛遠遊ᄒᆞ야 如今에 忘却來時路ㅣ라 ᄒᆞ야시뇨 <남명해 상,28b>

(16가)의 후대토에서 '-了'로 실현된 의문법어미가 (16가)의 원토나 (16나)에서는 '-ヒ午'로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15세기 초의 음독구결자료에서도 의문법어미 '-니오'가 '-뇨'로 축약되어 실현된 예는 없었다. 『永嘉證道歌』의 후대토에 '-뇨'가 나타난다는 것은 후대토의 기입시기가 15세기 중반에 이르는 것일 가능성도 희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6가)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구결자 '乀'이다. 후대토에서 존칭의 선어말어미 '-시-'는 '是'를 原字로 하는 '乀'[25] 이외에도 '示'를 原字로 하는 'ニ'로 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후대토에서도 구결자 '乀'의 사용은 그리 일반적인 것이 아니어서 (16가)의 예 이외에 구결토 'ソ乀ヒ、(2a,10)'에서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면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 원토에서 '시'와 '이'는 각각 'ニ'와 '乀'로 표기되는 단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후대토의 '乀'가 '시'를 표기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후대토에서 '시'는 이중적인 표기체계를 갖게 되었고 '이'를 표기한 '乀'와도 혼동되게 되었다. 이는 후대토가 다른 구결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원토에 비해 표기의 단일화를 꾀하고 있다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제까지 『永嘉證道歌』에 보이는 구결자를 목록화하고, 목록화한 구

---

25) 구결자 '乀[시]'는 안동본 <남명집>에는 사용된 바가 없지만 남권희(가)본 <능엄경>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결자의 쓰임을 검토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 문헌의 구결자가 기입된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원토의 구결자 사용에서 '리'는 'ㅣ'로, '어'는 'ㅓ'로, '샤'는 'ㅅ'로 표기된 것은 14세기말이나 15세기 초의 구결자 사용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며'를 'ㅁ' 외에 'ㅁ'로 표기한 것이나 '라'를 'ㆍ' 외에 'ㅅ'로 표기한 것도 나타나서 그 시기를 좀더 올려 잡고 싶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ㅁ'와 'ㅁ', 'ㆍ'와 'ㅅ'가 각각 사용 빈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미 'ㅁ'와 'ㆍ'로의 구결자 변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결자 사용과 관련된 이런 몇 가지 사실에 기초할 때 원토의 기입시기를 14세기말이나 15세기초로 보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26]

구결자의 기입시기는 14세기말에서 15세기초로 추정되지만 일부 구결토에서 이전 시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ㅁ斤'이나 'ㅅㅁㅈ', 'ㅅㄱㅗㅓ', 'ㅅㄴㅗㅓ'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양상은 가람본이나 일사본 『능엄경』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ㅅㅗㅓㅅㅔㅣ'나 2인칭 의문문으로 실현된 '-ㄱㅁ'와 같은 구결토는 발견되지 않는다.

3.3. 『永嘉證道歌』의 구결토 몇 가지

3.3.1.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보이는 감탄법어미 '-고녀/고야'의 선대형으로 파악되는 '-ㅁㅗ[고여]'가 이 문헌에서도 확인된다.[27]

---

26) 이 밖에 '디'를 표기하는 구결자로 이 자료에서는 'ㅊ'가 아닌 'ㅗ'字가 쓰였다는 사실도 『永嘉證道歌』의 구결 기입연대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재영(1996:140)은 'ㅊ'가 남권희(가)본 『능엄경』과 『범망경』 이후에 쓰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디'의 표기에 'ㅊ'자가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구결의 기입연대를 대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7)가. 勸亦ᄉᆞᄋᆞᄇᆞ 從今ᄋᆞ 息求索ᄒᆞᅀᅵ 自有珎財ᄂᆞᆫ 滿故鄕ㅁᆞᄂᆞ{ᄉᆞᄇᆞ、} <영가 7b,5-6>

나. 너를 勸ᄒᆞ노니 이제브터 얻디 마롤디어다 내게 잇ᄂᆞᆫ 쳔량이 故鄕애 ᄀᆞᄃᆞᆨᄒᆞ니라 <남명 상36>

(18)가. 直下分明ᄉᆞᄇᆞ 猛提取ᄒᆞᅀᅵ 數竿修竹一堂風ㅍᆞᄂᆞ <영가 8a,9-10>

나. 바ᄅᆞ 分明ᄒᆞ니 勇猛히 자바 取ᄒᆞ라 두ᅀᅥ 줄기 긴 대와 一堂ᄉᆞ ᄇᆞᄅᆞ미로다 <남명 상 40>

(19)가. 須臾ᄋᆞ 寒日ᄂᆞᆫ 下西山ㅁᆞᄂᆞ{ᄉᆞᄇᆞ、} <영가 4b,9-10>

나. 須臾에 ᄎᆞᆫ ᄒᆡ 西山애 ᄂᆞ리리라 <남명해 상22b>

(20)가. 太에 드러 每事를 묻고녀<논어 1:24>

나. 君이 ᄀᆞᆯᄋᆞ샤ᄃᆡ 三子ᄃᆡ게 ᄀᆞᆷᄒᆞ라 ᄒᆞ시고녀<논어 3:61>

다. 도로 누ᄂᆞᆯ ᄀᆞᄆᆞ니 눈므리 ᄉᆞᆸ다 디ᄂᆞ고야<무덤 편지 73>

라. 이러면 네 므르고져 ᄒᆞ노괴여<번노 하:19>

마. 아ᄒᆡ로 ᄒᆞ여금 관원을 ᄀᆞ초고 듣디 못ᄒᆞ엿곤여<소학 4:44>

(17)에서 '-ㅁᆞᄂᆞ'는 형용사어간 '滿(ᄀᆞᄃᆞᆨᄒᆞ)-'에 결합되었으며 (18가)의 '-ㅍᆞᄂᆞ'는 계사 '이-'에 '-ㅁᆞᄂᆞ'가 결합되면서 'ㄱ'이 약화되어 '-ㅍᆞᄂᆞ'로 실현된 것이다. 16세기 국어의 '-고녀/고야'의 경우 (20)에서 볼 수 있듯이 '-시-'나 '-ᄂᆞ-'와 같은 선어말어미를 동반하고 실현될 수 있었지만 음독구결에 보이는 '-ㅁᆞᄂᆞ'는 용언 어간과 직접 결합되었다. (19가)에서 '-ㅁᆞᄂᆞ'는 자동사 '下(ᄂᆞ리)-'에도 직접 결합할 수 있었다. 『永嘉證道歌』나 안동본 『남명집』에 나타나는 '-ㅁᆞᄂᆞ'는 오히려 용언 어간에 직접 결합해서 실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희(1996)는 16세기 국어의 '-고녀'가 청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독

27) 이승희(1996:13)에서 <금강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나오는 '-ㅁᆞᄂᆞ'의 존재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金斗燦(1987)에서도 안동본 <남명집>을 다루면서 '-ㅁᆞᄂᆞ'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다.

백적인 성격의 종결어미였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17)의 예문은 단순히 독백적인 성격의 감탄문도 아니라는 점에서 16세기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17)의 '勸尒ᄂᆞᄋᆞᄒᆞ/너를 勸ᄒᆞ노니'에서 알 수 있듯이 후행하는 감탄문에서 청자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후행하는 감탄문이 혼잣말처럼 되뇌여진 것이라 해도 오히려 청자가 고려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ㅁㅗ/-ㅛㅗ'는 '-ㅁㄱㅗ'[28]와의 관계 속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명사어미 '-ㄴ'의 탈락이다.[29] 14세기 음독 구결 자료는 '-ㅁㄱㅗ'보다 '-ㅁㅗ/-ㅛㅗ'가 더욱 많이 출현한다. 15세기 국어에서는 '-ㅁㅗ/-ㅛㅗ' 혹은 '-ㅁㄱㅗ' 계열의 감탄법 어미가 나타나지 않다가[30] 16세기에 오면 형태상 '-ㅁㅗ/-ㅛㅗ'보다는 '-ㅁㄱㅗ'에 가까운 '-고녀'가 주류를 이루는 것도 '-ㅁㄱㅗ'와 '-ㅁㅗ/-ㅛㅗ'의 관계 속에서 좀더 깊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ㅁㅗ/-ㅛㅗ'에 의한 감탄문 이외에 동명사어미 '-ㄴ'에 감탄의 조사 '-여/이여'가 결합되어 감탄문을 형성한 예도 보인다.

(21)가. 宗亦通ㅅㄱㅗ 眞秘訣ㅌ 摩竭當年ㅣ 曾爲說ㅅㄴㅌ、 <영가 9a, 1>

나. 宗亦通ㅅㅌ/ㅅㅌㅗ 眞秘訣ㅌ 摩竭當年ㅣ 曾爲說ㅅㄴㅣ <안동·남명 12b,2>

다. 宗亦通이니 眞秘訣이니 摩竭當年에 曾爲說ᄒᆞ시다 <남명해 상, 43b>

---

28) '-ㅁㄱㅗ'의 예는 박진호(1998:130)와 장윤희(1998) 참고.

29) 다만 연결어미 형성에서 나타나는 동명사어미 '-ㄱ, '-ㅁ' 탈락현상과 같이 취급하여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을 잠정적으로 해 볼 뿐이다.

30) 이승희(1996)에서는 고려시대 구결자료에서 이미 '-ㅁㅗ'의 예가 보이므로 15세기 국어 자료에서 '-고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우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라. 宗올 ᄯᅩ 通호리니 眞實ㅅ 秘密ᄒᆞᆫ 訣이니 摩竭 그히예 일즉 爲ᄒᆞ야 니ᄅᆞ시다

(22)가. 說亦通ㅅᄒᆞᆫᄃᆞ 義无量ᄋᆞᆫᄒᆡ 應感隨機ᄋᆞᆫᄃᆞ 爲宣申易ᄒᆡ、<영가 9a, 3>

나. 說亦通ㅅᄒᆞᆫᄂᆞ 義無量ᄋᆞᆫᄒᆡ 應感隨機ᄋᆞᆫᄃᆞ 爲宣申易ᄋᆞᆫᄃᆡ <안동·남명 12b,4>

다. 說亦通이니 義無量ᄒᆞ니 應感隨機ᄒᆞ야 爲宣申易ᄒᆞ시니라 <남명해 상,44b>

라. 닐오ᄆᆞᆯ ᄯᅩ 通호리니 ᄠᅳ디 그지 업스니 感애 應ᄒᆞ며 機ᄅᆞᆯ 조초매 爲ᄒᆞ야 펴시니라<남명해 상,44b>

(21가)의 'ㅅᄀᆞᆫᄂᆞ'와 (22가)의 'ㅅᄒᆞᆫᄃᆞ'는 각각 [[ᄒᆞ-+-오-+-ㄴ]+-여]와 [ᄒᆞ-+-오-+-ㄴ]+-이여]로 동명사형에 감탄의 조사가 결합되어 감탄문을 형성한 것이다.[31] 이들은 중세국어의 '-호미여'와 같은 구성, 같은 표현가치를 갖는다.[32]

'ㅅᄀᆞᆫᄂᆞ'와 'ㅅᄒᆞᆫᄃᆞ'가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이 문헌에 보이는 동명사어미가 명사절을 형성하는 기능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23)가. 未識慈尊ㅅᄇᆡᄀᆞ 須急去ㅓᄒᆡ 廻頭ㅅᄀᆞᄐᆞ 鷄子ㅣ 過新羅ㅅᄇᆡ、<영가 1b,7-8>

나. 自從認得曹溪路ㅅᄇᆡᄋᆞᄏᆞ 鉢袋針筒ㄹ 日ᄋᆞᆫ 開ㅅᄂᆞ、<영가 10a,

---

31) <번역소학>에도 동일한 명사에 '-여' 혹은 '-이여' 각각 결합한 예가 존재한다.

(가) 이 詩 지슨 사ᄅᆞᆷ이여 <번소 6,1>

(나) 긔이ᄒᆞᆯ셔 이 사ᄅᆞᆷ여 <번소 9,30>

32) 앞에서 언급한 '-ㅁᄂᆞ/-ᄑᆞᄂᆞ', 'ㅅᄀᆞᆫᄂᆞ'와 'ㅅᄒᆞᆫᄃᆞ' 이외에 감탄법 어미로 '-ㄱᄉᆞᄂᆞ/ᄒᆞᄂᆞ, -ㄹᄉᆞᄂᆞ, -ㄱᄃᆞ' 등도 다른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결자료의 감탄법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장윤희(1998) 참고.

7>

다. 无塵ᄉᆞᆫᄀᆞ 未許傳衣鉢ᄂᆞᄒᆞᄀᆞ 弄影ᄉᆞᆯᄉᆞᆫᄀᆞ 須知不易觀ᄂᆞᄒᆞᄂᆞᆫᄒᆡ、 <영가 23a,1-2>

(23가)의 'ᄉᆞᆫᄒᆡᄀᆞ'은 동사어간 'ᄒᆞ-'와 동명사어미 '-ㄴ'이 결합한 'ᄒᆞᆫ'에 보조사 '-ᄋᆞᆫ'이, 'ᄉᆞᆫᄒᆡᄋᆞᆫ'는 역시 'ᄒᆞᆫ'에 조사 '-ᄋᆞ로'가 결합된 것이다. (23다)의 'ᄉᆞᆯᄉᆞᆫᄀᆞ'은 동사어간 'ᄒᆞ-'와 동명사어미 '-ㄹ'이 결합한 'ᄒᆞᆯ'에 보조사 '-란'이 결합된 것으로 'ᄒᆞᆯ란'으로 읽을 만한 것이다.

3.3.2. 그간의 음독 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조건·가정의 접속어미로 분류되어 온 것은 상당수에 이른다.[33] 이 문헌에서도 조건·가정의 의미와 관련된 구결토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ᄀᆞ/面, ᄂᆞᄀᆞㅗㅓ, ᄂᆞᄂᆞㅗㅓ, ᄂᆞᄂᆞㅗㅓ, ᄉᆞᄀᆞᄉᆞᆫᄀᆞ, ㅈㅅ, ㅇᄉᆞ' 등이 이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원토의 'ᄂᆞᄀᆞㅗㅓ'는 좌토나 후대토에서 모두 'ᄉᆞᄀᆞ'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ᄂᆞᄀᆞㅗㅓ'의 소멸과 함께 이것이 'ᄉᆞᄀᆞ'으로 대체된 시기를 짐작케 한다.

(24)가. 法身ᄂᆞ 覺了ᄂᆞᄀᆞㅗㅓ{ᄉᆞᄀᆞ} 无一物ᄉᆞᆫᄒᆡ、 <영가 1b,5>

나. 法身覺了ᄂᆞᄒᆡㅗㅓ 無一物、ᄉᆞᄀᆞᆫᄒᆡ。 <안동·남명 3a,2>

다. 法身ᄋᆞᆯ 覺了ᄒᆞ면 無一物ᄒᆞ니 / 法身ᄋᆞᆯ 알면 ᄒᆞᆫ 것도 업스니 <남명해 상,5a>

(25)가. 淨五眼ᄂᆞᄀᆞㅗㅓ{ᄉᆞᄀᆞ} 異還同ᄉᆞᆫᄒᆡ 萬別千差ᄂᆞ 畢竟空ᄉᆞᆫᄒᆡ、{ᄉᆞᄂᆡ} <영가 5b,3>

나. 淨五眼為面 異還同ᄂᆞᄒᆡ 萬別千差ᄂᆞ 畢竟空ᄉᆞᄂᆡ <안동·남명 8a,6>

다. 淨五眼ᄒᆞ면 異還同이니 萬別千差ㅣ 畢竟空ᄒᆞ도다 / 五眼이 조ᄒᆞ면 달오미 도ᄅᆞ혀 ᄒᆞᆫ가지니 萬別와 千差왜 ᄆᆞᄎᆞ매 뷔도다

33) 그러나 음독 구결의 조건·가정의 접속어미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이나 각각의 의미기능을 밝혀 그 차이를 논의한 작업을 아직 시행된 바가 없다.

<남명해 상,25b>

(24)는 원토의 'ㅅ ㄱ ㅗ ㅓ'[34]에 대해 좌토 기사자가 'ㅅㅓ'을 기입한 것이고, (25)는 원토의 'ㅅ ㄱ ㅗ ㅓ'에 대해 후대토의 기사자가 'ㅅㅓ'을 기입한 것을 보인 것이다. 좌토에서 한번씩 'ㅅ ㄱ ㅗ ㅓ'[35]와 'ㅅ ㄴ ㅗ ㅓ'[36]가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원토의 'ㅅ ㄱ ㅗ ㅓ'는 모두 이런 식으로 좌토나 후대토에서 'ㅅㅓ'으로 改吐되고 있다. 조건·가정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 '-ㄱ ㅗ ㅓ'가 사라지면서 그것의 문법기능을 모두 '-ㅓ'이 담당하게 된 데에 연유한다. 이는 중세국어의 '-(으)면'이 모든 종류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37] 후대토가 15세기 중반쯤에 기입되었을 것과 좌토는 후대토보다 좀더 이르고 원토보다는 늦게 기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건의 접속어미 '-ㄱ ㅗ ㅓ'와 '-ㅓ' 사이의 이러한 변화가 15세기 초를 전후해서 일어났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럼, 'ㅅ ㄱ ㅗ ㅓ'와 'ㅅㅓ'은 용법상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었고, 'ㅅ ㄱ

---

34) 'ㅅ ㄱ ㅗ ㅓ'는 박진호(1998:137)와 정재영(1996:168)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ᄒᆞ- + -오- + -ㄴ]+-여히], 즉 동사어간 'ᄒᆞ-'의 동명사형에 처격조사 '-ㅗ ㅓ'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범망경> 등 여타의 문헌에서는 여기에 보조사 '-ㄱ'이 다시 결합되어 'ㅅ ㄱ ㅗ ㅓ 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5) (가) 眞不立ㅅᄒᆡ{ㅅ ㄱ ㅗ ㅓ} 白駒ㄱ 未似流波急ㅅᄒᆡ、<영가 22a,5>
(나) 眞不立ㅅᄀᆡᄒᆡ 白駒ㅣ 未似流波急ᄒᆡ、 <안동·남명 29a,2>
(다) 眞不立호리니 白駒도 未似流波急이니라 <남명해 하,26b>

36) (가) 決散浮雲孤月 上ㅅㅓ/{ㅅ ㄴ ㅗ ㅓ} 大千沙界 一時明ㅅᄀᆡ、 <영가 3b, 1-2>
(나) 決散浮雲ㅅᄀᆞ 孤月ㅣ 上ㅅᄒᆞㅡ 大千沙界ㅣ 一時明ㅅᄀᆞㅣ<안동·남명 5b,4-5>
(다) 決散浮雲ᄒᆞ야 孤月이 上ᄒᆞ니 大千沙界 一時明ᄒᆞ도다 <남명해 상 15b>

37) 그렇다면 음독구결의 조건 접속어미 '-ㅓ'과 중세국어의 '-(으)면'이 같지 않을 것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세국어의 조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는 장윤희(1991)이 참고된다.

ㅗㅓ'가 왜 하필 'ㅅㄱ'으로 대체되었던 것인가. 필자는 아직 이러한 질문에 온전히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문헌에 보이는 'ㅅㄱㅗㅓ'와 'ㅅㄱ'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6)가. 覺卽了ㅅㄱㅗㅓ 日午ㅅ 三更ㅅㅈ 半夜ㅅ 曉ㅅㄱㅣ <영가 12a, 5>

나. 須信春陽ㅅ 及萬物ㅅㄱㅗㅓ 高低花木ㅅ 一時開ㅅㅈㅎㅗ <영가 22a,3-4>

다. 但得本ㅅㄱㅗㅓ 終朝更不勞脣吻ㅇㅣ <영가 13a,5>

라. 驀然撞倒須弥山ㅅㄱㅗㅓ 始信從來ㅈ 无一物ㅅㄴㅅㄱㅣ <영가 19b,9-10>

(27)가. 廻頭ㅅㄱ 鷄子ㅅ 過新羅ㅅㄱㅣ <영가 1b,8>

나. 神膏ㅈ 點出ㅅㅇ 一堂 寒ㅅㄱ 始信靈光 非外得ㅌㅣ <영가 3a, 9-10>

다. 誰无念ㄱㅜ 念皆眞ㅌ 若了眞ㅈㄱ 未出塵ㅇㅣ <영가 3b,3>

라. 了得修行ㅅㄱ 豈虛妄ㄱㅜ <영가 16b,1>

(26)은 선행절이 'ㅅㄱㅗㅓ'에 의해 조건절이 될 때, 그에 후행하는 주절의 종결법을 보인 것이다. (26가)는 주절이 종결어미 '-ㅣ'를 갖는 평서문이되 선어말어미 '-ㅏ-'가 결합되어 감탄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26나)는 감탄법어미 '-(ㄱ)ㅎㅗ'가 결합되어, 'ㅅㄱㅗㅓ'에 의한 조건절이 선행절로 올 때 주절에 감탄문이 올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26다)에서 볼 수 있듯이 선어말어미 '-ㅇ-'가 결합된 평서문의 주절도 'ㅅㄱㅗㅓ' 조건절과 공기할 수 있었다. (26라)에서 선어말어미 '-ㅣ-'가 결합된 평서문의 주절도 'ㅅㄱㅗㅓ' 조건절과 배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7)은 선행절이 'ㅅㄱ'에 의해 조건절이 될 때, 그에 후행하는 주절의 종결법을 보인 것이다. (27가)는 (26라)와 같이 선어말어미 '-ㅣ-'

가 결합된 평서문이, (27나)는 선어말어미 '-ᄒᆞ-'가 결합된 평서문이 각각 'ᄂᆞᄆᆞ' 조건절과 공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7다)는 (26다)와 같이 주절이 선어말어미 '-ㅇᆞ-'가 결합된 평서문인 경우이다. 이 때에도 'ᄂᆞᄆᆞ' 조건절과 접속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었던 듯하다.

선행절이 'ᄂᆞᄀᆞᅀᆞᆫ' 조건절일 경우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27라)와 같은 경우이다. (27라)는 『남명집언해』에서 '아라 行 닷ᄀᆞ면 엇뎨 虛妄ᄒᆞ리오'로 언해되는 것으로, "깨달아 行을 닦으면 虛妄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수사의문문이다. 선행절이 'ᄂᆞᄆᆞ' 조건절인 경우는 주절이 의문법어미 '-ㅣᄭᅡ'가 결합된 수사의문문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행절이 'ᄂᆞᄀᆞᅀᆞᆫ' 조건절인 경우는 주절이 의문문인 경우가 드물다.[38]

(26)과 (27)이 갖는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필자는 아직 확신이 없다. 다음 예에서 보이는 이 문헌의 'ᄂᆞᄀᆞᅀᆞᆫ'와 'ᄂᆞᄆᆞ'은 의미상 아무런 차이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28)가. 法身ㅣ 覺了ᄂᆞᄀᆞᅀᆞᆫ{ᄂᆞᄆᆞ} 无一物ᄋᆞᆫᄃᆡ<영가 1b,5-6>
法身ᄋᆞᆯ 알면 ᄒᆞᆫ 것도 업스니 <남명해 상,5a>
나. 若了法身ᄃᆞᆫ 无內外ᄋᆞᆫᄃᆡ<영가 1b,3-4>
ᄒᆞ다가 法身ᄋᆞᆯ 알면 안팟기 업스니라 <남명해 상, 4b>

(28가)와 (28나)는 선행절의 구성이나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갖는

38) 선행절이 'ᄂᆞᄀᆞᅀᆞᆫ' 조건절인 경우와 'ᄂᆞᄆᆞ' 조건절인 경우에 평서문의 주절이 오는 양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ᄂᆞᄀᆞᅀᆞᆫ' 조건절의 경우는 주절이 '-ᄒᆞᄂᆞ'(연결어미 '-ᄒᆞ'도 포함)인 경우가 10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ㅐ', '-ㅣᄂᆞ'의 순서로 '-ㅣᄂᆞ'는 2회에 불과하다. 반면 'ᄂᆞᄆᆞ' 조건절의 경우는 주절이 선어말어미 '-ㅣ-'를 갖는 경우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ᄒᆞᄂᆞ'의 순서이다. 이러한 사실이 단순한 경향성의 차이일는지 모르겠으나 'ᄂᆞᄀᆞᅀᆞᆫ'와 'ᄂᆞᄆᆞ'의 기능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언급해 둔다.

조건의 성격, 문장 전체의 의미가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28나)에서는 '若'에 호응하는 연결어미 'ㅕ'으로서 조건절이 실현되고 (28가)는 'ㅅㄱㅗㅏ'로서 조건절이 실현된다는 것뿐이다.

3.3.3. 'ㅗㅅㅂ'는 다음의 비유구문에 현토된 구결토이다.

(29)가. 猶如避溺而投火ㅗㅅㅂ 水火雖殊ᄀᆞ 害豈差ㅣㅜ <영가 16a,3>
나. 猶如避溺ᄒᆞ고 而投火ᄒᆞ니 水火ㅣ 雖殊ㅣ나 害豈差ㅣ리오 <남명해 상,78a>
다. 됨교물 避ᄒᆞ고 브레 드롬 ᄀᆞᆮᄒᆞ니 믈와 블왜 비록 다ᄅᆞ나 害엇뎨 다ᄅᆞ리오

(29) '猶如'의 비유구문에 현토된 'ㅗㅅㅂ-'는 15세기 국어의 'ᄃᆞᆺᄒᆞ-'의 선대형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14세기 음독 구결 자료인『범망경』에서는 'ㅅㄱ矢(ㅗ)七ㅊㅣ'와 같이 '矢七' 혹은 'ㅗ七'이 의존명사로 기능하는 통사적 구성의 것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는 'ㅗ七'이 동사어간에 직접 결합된 'ㅗ七ㅅㅂ-'의 구성에서 '七'이 생략된 'ㅗㅅㅂ-'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3.3.4. 본 장에서는 유일례이거나 판독이 어려운 구결토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30)은 단 한번 출현하는 'ㄱㅂ'의 용례이다.

(30)가. 欲將心意ㅅㅈ學修行ㅊ 大虛ㄱㅂ{ㅈ} 豈解生頭角ㅐㅜ<영가 4a,5-6>
나. 心意를 가져 修行 비호고져 ᄒᆞ린댄 큰 虛空애 엇뎨 能히 머리와 ᄲᆞᆯ왜 나리오<남명해 상,19a>
다. 我聞ㅅ· 如來ㅂㄱ 善護念諸菩薩ㅅㅅㅁ 以心ㅈㅅㄴㅋ<영가 序a,2-3>

(30가)의 'ㄱㅂ'은 '大虛'에 달린 좌토나『남명집언해』를 보아도 처격

이 결합될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처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이 명사구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보조사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ㄱㅌ'은 처격조사이거나 아니면 보조사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결자료에 대한 지식으로 'ㄱㅌ'은 어떤 보조사나 처격조사에서도 쉽게 연상되는 형태가 아니다.

(30다)에서 볼 수 있듯이 'ㅌㄱ'은 보조사 'ᄂᆞᆫ'에 대한 표기이다. 물론 'ㄴ/ᄂᆞᆫ/ᄋᆞᆫ'을 표기하는 데 'ㄱ'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ᄂᆞᆫ'의 경우는 간혹 'ᄂᆞ'나 'ㄴ'을 다시 적어 주는 경우가 있다. (30다)의 'ㅌㄱ'은 'ᄂᆞᆫ'의 'ᄂᆞ'를 다시 적어 준 것이다. 우리는 (30가)의 'ㄱㅌ'이 보조사일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는데, (30다)를 고려한다면 'ㄱㅌ'은 보조사 'ᄂᆞᆫ'을 표기한 'ㅌㄱ'에서 구결자의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음에 제시하는 구결토는 그 판독이 어려운 것들이다.

(31)가. 了知生死不相于ㆍㅅㄷㅌ{入可ㆍ} 若了生死ㅅㄱㅗㅜ 无去住ㅣ <영가 10a,9-10>

나. 遊子ㄱ 幾聞香撲鼻午广ㄱ乙ㆍㄱ 等閑ㅋ 失却本來心ㅅㅌㅣ <영가 24a,9-10>

다. 酸酒冷茶三五盞又 長江ㅋ 風急ㅍㄹ 浪花多ㅅㅐㅣ{ㅅㄱㅈㅣ} <영가 5a,7-8>

라. 心鏡明ㅅㅋ 耀遐邇ㅅㅌ 杲日ㅅ 昇空午又刀 難可比ㅌㆍ <영가 15a,5-6>

마. 刹那ㅋ 滅却三祇劫ㆍㅅㄷㅌ 一念ㅋ{ㅅ} 无生又ㅗㅜ{ㆍ} 一亦非ㅌㆍ <영가 19a, 7-8>

(31가)는 [了知 [生死不相于ㅅ] 可ㆍ]의 구성을 갖는 것이므로 'ㅅ可ㆍ'는 우선 [둘#(ᄒᆞ)가라]로 읽을 수는 있지만 '可ㆍ'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 지가 난감하다.[39] (31나)는 '午广ㄱ乙ㆍㄱ[오마ᄂᆞᆫ으란]'으로 읽을 수

있을 듯한데 연결어미 '-ᄀᆞᄆᆞᆫ[마는]'에 결합된 'ㄹᆞᄀᆞ[으란]'이 문제이다. (31다)는 원토의 'ᄒᆞᄃᆞ[ᄒᆞ두다]'를 고려할 때 'ᄒᆞᄀᆞᄋᆞ'가 [ᄒᆞ-+-ㄴ+이-(계사)+-도-+다]의 구성을 갖는 것으로, 그래서 [ᄒᆞᆫ(이)로다]로 읽힐 수도 있을 듯하나 분명치 않다. 이외 (31라)[40]와 (31마)[41]도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들에 관해서는 필자의 寡聞탓일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4.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음독 구결 자료인 정문연본 <永嘉證道歌>를 대상으로 그것의 서지사항과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永嘉證道歌>의 구결을 검토하였다.

<永嘉證道歌>에 기입된 구결은 細筆로 깨끗이 기입된 원토와 투박하고 먹이 흐린 후대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 문헌의 원토의

---

39) 박진호(1996:79)에서는 다음 구문에 보이는 'ᄒᆞᅀᆞ'를 명령형어미로 파악한 바 있다.

(가) 則知ᄒᆞᅀᆞ 汝身ㄴ 與諸如來淸淨法身ᄋᆞ 比類發明ᄀᆞᆺᄒᆞᄀᆞ 如來之身ᄀᆞ 名正編知ᄒᆞ 汝等之身ᄀᆞ 號性顚倒ㅅᄂᆡ、 <일사·능엄 2,28b:12>

(나) 則知ᄒᆞᅀᆞ 汝心 本妙明淨ᄀᆞᆺㄴ 汝自迷悶ㅅᄋᆞ; 喪本受輪ㅅᄋᆞ; 於生死中ᄋᆞ; 常被漂溺ㅅᄂᆡᄒᆞᅀᆞ <일사·능엄 2,32b:3>

그러나 (28가)는 명령으로 해석하기 힘들 듯 하다. 안동본 <남명집>이나 <남명집언해>에 각각 '、ㅅᄀᆞᄐᆡ'와 '호니'에 대응된다.

40) 안동본『남명집』의 '昇空ㅅᄂᆡᄲᅳᄀᆞ'와『남명집언해』의 '昇空ᄒᆞ야도'를 고려할 때 'ᄒᆞᄋᆞᄀᆞ'의 'ᄋᆞᄀᆞ'는 '로'와 보조사 '도'의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앞에 결합된 'ᄒᆞ'인데 어떤 형태소로 판독해야 할지 불분명하다. 혹 'ᄋᆞ[로]'에 동화되어 매개모음 '으'가 '오'로 실현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으로+도]의 구성을 갖는 구결토가 된다.

41) (28마)의 'ᄋᆞᅩᆫ'는 'ㅅᄀᆞᅩᆫ'에 선어말어미 '-ᄂᆞ-'가 결합된 'ㅅᄋᆞᄀᆞᅩᆫ'에서 동사어간 'ㅅ'와 동명사어미 'ᄀᆞ'이 생략된 표기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경우 '리, 샤, 어'의 표기를 전적으로 구결자 'ㅐ, ㅅ, ㅇ'에 의하고 있었다. 반면 '라'와 '며'의 표기에 'ㅅ'와 'ㆍ', 'ㅇ'와 'ㄱ'를 더불어 사용하고 있으나 이미 구결자 'ㆍ'와 'ㄱ'의 사용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14세기말에서 15세기초에 구결이 기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후대토는 후대토의 의문법어미 '-ㅣ'의 표기나 원토에서 이중적인 표기체계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단일화 하는 양상으로 보아 대체로 15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구결토가 기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후대토에서 '어'의 표기에 'ㅇ'와 'ㅇ'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차자 표기의 보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문헌에 보이는 구결토로는 감탄법 종결어미로 '-ㅁㅗ/ㅍㅗ'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조건 접속어미로 'ㅅㄱㅗㅏ'와 'ㅅㄲ'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원토에 'ㅅㄱㅗㅏ'로 현토된 것이 좌토나 후대토에서 모두 'ㅅㄲ'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을 이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원토와 후대토의 구결이 기입된 시기의 추정에 따라 'ㅅㄱㅗㅏ'의 소멸과 그에 따른 'ㅅㄲ'으로의 대체가 15세기초에 즈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정문연본 <永嘉證道歌>는 14세기에 구결이 기입된 안동본 <남명집>과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남명집언해>와의 비교를 통해 국어사 연구를 위한 비교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들 자료가 국어사에 남아 있는 미해결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金斗燦(1987a),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硏究」, 단국대 박사 학위논문.

南權熙(1997), 「차자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南豊鉉(1972), 「『南明泉繼頌諺解 下』에 대하여」, 『影印本 南明泉繼頌諺解』 下,

檀國大 國語國文學科.
南豊鉉(1973),「南明泉繼頌諺解 上 解題」,『影印本 南明泉繼頌諺解』上, 檀國大 國語國文學科.
_____(1990),「高麗末 朝鮮初期의 口訣硏究」,『震檀學報』69, 진단학회.
_____(1995),「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口訣資料集 一, 高麗時代 楞嚴經』, 韓國精神文化硏究院.
박진호(1996),「奎章閣 所藏 口訣 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口訣硏究』제1집, 口訣學會.
_____(1998),「고대국어의 문법」,『국어의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朴喜淑(1978),「南明泉和尙頌證道歌에 보이는 口訣」,『관동논문집』제6집, 관동대학교.
安秉禧·李珖鎬(1990),『中世國語文法』, 學硏社.
李丞宰(1990),「高麗本 梵網經의 口訣」,『애산학보』9.
_____(1993),「麗末鮮初의 口訣資料」,『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 지성사.
_____(1995),「南權熙本 楞嚴經의 解題」,『口訣資料集 一, 高麗時代 楞嚴經』, 韓國精神文化硏究院.
_____(1998),「고대 국어 형태」,『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이승희(1996),「중세국어 감동법 연구」,『國語硏究』139호, 國語硏究會.
장윤희(1991),「중세국어 조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國語硏究』104호, 國語硏究會.
_____(1998),「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鄭在永(1996a),「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口訣硏究』제1집, 口訣學會.
_____(1996b),「祇林寺本 楞嚴經 解題」,『口訣資料集』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황선엽(1996),「일사문고본 <大方廣圓覺略疏注經>」,『口訣硏究』제1집, 口訣學會.

부록

『永嘉證道歌』의 구결토 목록

이것은 『永嘉證道歌』에 나타나는 구결토를 정리하고 그것의 출처를 밝혀 제시한 목록이다. 다음에 제시할 목록은 앞에서의 논의에 따라 원토와 후대토에 대한 목록을 각각 따로 작성하였다. 원토에 후대토가 첨기되어 하나의 토를 이루는 경우는 원토에 포함시켜 정리하되 후대토는 음영으로 처리하여 목록 안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는 좌토를 표시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좌토는 원토에 포함시켰으나 먹이 흐린 후대토가 왼쪽에 기입된 경우는 후대토로 분리하여 정리하되 좌토임을 표시하였다. 이 또한 앞의 논의에 따른 조처이다. 각 구결토의 출처는 1회로 제한하여 제시될 것이지만 이들이 이 문헌에 나타난 전체 횟수를 각 구결토 옆의 '[ ]' 안에 제시해 두었다.

[1] 原吐

ᄒᆞ[1]--------- <1a,5>
ㅿㅂ(?)[1]----- <15b,6>
ㅿㅂㅏ[2]------<12a,4>
ㅿㅣ[3]------- <4b,3>
ㅿㄴ[5[42]]------ <16b,8>
ㅿㄹ[5]------- <1a,8>
ㅿㆍ[1]------- <8b,2>
ㅿㅊㅣ[1]------<22a,7>
ㅿㄱㅂ[1]------<20b,2>
ㅿㄱ[2]--------- <7b,5>
ㅿㅂㅛ[1] -------<17a,4>
ㅿㅸ[1]----------<15b,5>
ㅿㅅ[1]--------- <20b,5>
ㅿㄴ[11]-------- <13b,5>
ㅿㄹ[3]--------- <21b,2>
ㅿㆍ[2]--------- <10b,10>
ㅿㄱㅂ[1]------- <8b,10>
ㅿㄴㆍ[1]--------<14b,8>

42) 전체 횟수 '5회'에는 후대토와 결합된 'ㅿㄴ<3b,6>'도 포함되어 있다.

ㅁ[41]--------- <10a,5>
ㅁ斤[1]-------- <2b,3>
ㅁ广ㄱ[1]-------<23b,2>
ㅁㅅㅂ丶[1]----<11b,4>
ㄱ[106]-------- <10a,2>
乃[12]--------- <12a,7>
ㅈ[55]--------- <10a,3>
ㅈㄲ[3]---------<19b,7>
ㅈㅅㅅㄱㅅㅗ[1]-<序a,3>
ㅂ[44]--------- <10b,1>
ㅂ丶[88]-------<1a,10>
ㅣ[20]--------- <10a,9>
ㄲ[15]--------- <10b,6>
ㅅㄴ[2]-------- <14a,6>
ㅅノㅢㅂ[1]----<14b,9>
ㅅㅅㅢ丶[2]----<14a,10>
ㅎㄴㅅㅢ丶[1]-- <23b,6>
ㄴ[23]--------- <11a,7>
ㄴㅅㅂ[1]-------<19a,2>
乙[33]----------<序a,6>
{乙ㅣ}[1]-------<18b,1>
丶[16]----------<14b,1>
丶ㅁㄱ[1]-------<14a,3>
丶ㄱ大[1]-------<19a,8>
{丶大}[1]-------<19a,9>
{丶ノㅂ丶ㅣ}[1]-<10a,8>
丶ノ乙ㅅㅗ(ㅋ丶[43])[1]-<2a,5>
ㅁㄱ[9]---------- <18b,7>
ㅁㄲ[2]---------- <14b,2>
ㅁㅗ[2]---------- <4b,10>
古[1]------------ <20b,2>
ㄱㅂ[1]---------- <4a,6>
男[1]------------ <16b,9>
ㅈㅣ[17]--------- <11b,7>
ㅈㅗ十[1]--------<19a,7>
ㅈㅅㄷ가[1]-------<序a,2>
{ㅂㅂ丶}[1]------ <9a,2>
ㅂㄱ[3]---------- <13b,2>
大[31]----------- <10a,8>
{入可丶}[2]------ <10a,9>
ㅅㄴㅅㅢ丶[2]---- <19b,10>
ㅅㅅㅂ丶[1]------<9b,6>
ㅅㅅㅋ[1]--------<9b,8>
ㅗㅅㅂ[1]--------<16a,3>
ㄴ丶ㄱ[1]--------<17a,3>
{ㄴㅅㅋ}[1]------ <17a,1>
乙又[1]---------- <2a,10>
ㅅ[1]------------ <16b,2>
丶ㅁ[1]---------- <19a,10>
丶ㄱ[5]---------- <18b,5>
丶ㄱㅅ[1]------- <22b,5>
丶ㄲ[4]---------- <10b,9>
丶ノㄴ[1]--------<23a,10>
丶ノㅢ丶[1]------<10a,8>

43) 'ㅋ'는 정확하지 않다. 무슨 자인지 잘 모르겠다.

丶ソヒ[3]------<3a,7>
丶ソヒ丨[3]----<15b,4>
丶ソリ午[1]----<14a,2>
丶ソニヒ[46]---<10a,9>
丶ソ氵カ[1]----<9a,7>
リヒ[1]-------- <2b,5>
リオヒト[1]----<1b,4>
リ午ソヒ[1]----<4a,1>
分[4]---------- <19a,3>
ア[4]---------- <1b,3>
氵[2]---------- <13a,10>
ニヒ丶[3]------<17b,4>
氵ㄱ[4[44]]------ <23a,5>
氵丶[1]-------- <3a,1>
氵ソヒ[1]------<18b,3>
卩[2]---------- <18a,10>
オㄱ广ㄱ[2]----<序a,6>
オヒト[1]------<13a,10>
オ入[1]-------- <18b,1>
{オ乙}[1]------ <10a,5>
オヒ丨[28]-----<10a,2>
{今ヒ}[1]------ <5a,10>
午[17]--------- <12a,2>
午又カ[1]------<15a,5>
午广ㄱ乙丶ㄱ[1]-<24a,9>
五ㄱ[1]-------- <10b,3>
ト[2]---------- <7b,2>
ラヒ丨[1]------<24a,1>

丶ソヒ丶[2]------<20a,4>
丶ソ丶[12]-------<12b,2>
丶ソ入[1]--------<10b,1>
丶ソ氵ヒ午[1]---- <6a,6>
{ッ丨}[1]-------- <2a,6>
リ丶[3]---------- <序a,6>
リ午[53]--------- <序a,10>
リ五[1]---------- <2a,9>
久[1]------------ <18b,9>
七[1]------------ <20b,7>
氵ソリ丶[1]------<14b,2>
氵[141]---------- <10a,10>
氵カ[2]---------- <6a,10>
氵氵[3]---------- <12a,4>
氵ソヒヒ[1]------<12a,10>
オㄱ丁[7]--------<13b,10>
オヒ[2]---------- <3b,4>
オ丨[28]--------- <10b,8>
{オし}[1]--------<1b,4>
オ分[1]---------- <19a,6>
オニヒ[1]--------<15b,6>
ナ[5]------------ <15a,4>
午ㄱ[2]---------- <13a,3>
午广ㄱ[1]--------<8b,1>
五[1]------------ <11a,7>
五ナ[2]---------- <14a,4>
ラ[22]----------- <10a,6>
乀[186]---------- <10a,1>

44) 전체 횟수 '4회' 중 후대토와 결합된 '氵ㄱ <2b,8>/<3a,7>'이 포함되어 있다.

ㄴㄱ[1]------- <1b,7>
ㄴㄲㅗㅂ[1]----<24a,2>
ㄴㅂㅂㆍ[1]----<18a,2>
ㄴㅎㅇㅂㆍ[1]-- <23a,2>
ㄴㅣㅜ[2]------<5a,10>
{ㄴㅣㅜㅇㄷㅂ}[1]-<8b,9>
ㄴㅑ[2]------- <22a,5>
ㄴㅚㅂㅣ[1]----<10b,6>
ㄴㅜㄱ[2]------<22a,7>
ㄴㄱㅣ[1]------<16a,7>
ㄴㄱㅅㄲ[3]----<12b,9>
ㄴㄱㅎ[1]------<21b,7>
ㄴㄱㅁ[4]------<15a,9>
ㄴㄱㅗ[1]------<9a,1>
ㄴㅂ[11]------ <10a,5>
ㄴㅂㆍ[2]------<1a,9>
ㄴㅅㄲ[1]------<16b,3>
ㄴㄴ[1]------- <21b,7>
ㄴㄴㅗㅏ[1]----<12b,9>
ㄴㅣㅂ[7]------<13a,7>
ㄴㅣㅚㅣ[1]----<9a,10>
ㅋ[5]---------- <21b,4>
ㅇㅁ[1]------- <5a,5>
{ㅇㄱㄲㅣ}[1]-- <5a,8>
ㅇㄱㅅ[2]------<5a,1>
ㅇㄱㅁ[5]------<11b,2>
ㅇㄲㄱ[2]------<5b,5>
ㅇㄲㄱㅜ[1]----<23b,8>
ㅇㄲㄱㅅㄱ[1]-- <15b,7>
ㅇㄲㅣ[2]--------<11a,9>
ㅇㅂ[12]-------- <10b,3>
ㅇㅂㆍ[9]--------<10b,9>
ㅇㆍ[1]--------- <5a,1>
ㅇㅣㅜㄱㄱ[1]---- <24b,8>
ㅇㅋ[2]--------- <14b,10>
ㅇㅁㅂ[1]--------<21b,7>
{ㅇㅜ}[1]--------<7b,2>
卽大[1]--------- <22a,9>
ㄴㄱㅜ[3]--------<13a,4>
ㄴㄱㅗ[6]--------<22a,2>
ㄴㄱㅎㄲ[1]------<21b,4>
ㄴㄱㅁㄱ[2]------<23a,9>
ㄴㄱㅗ十[17]-----<10a,9>
ㄴㅂㅂ[2]--------<8b,1>
ㄴㅂㅗ[1]--------<9a,3>
ㄴㅁ[10]-------- <12a,10>
ㄴㅅㅗ十[1]------<3b,2>
ㄴㆍ[9]--------- <10a,3>
ㄴㅣㆍ[15]------ <12b,10>
ㄴㅣㅜ[1]--------<12b,10>
ㅅ[1]---------- <20b,3>
{ㅅㄱ}[1]--------<11b,7>
ㅅㄱ大[2]--------<13a,9>
ㅅㄱㅅㅅ[1]------<12b,10>
ㅅㄱ[7]--------- <1b,9>
{ㅅㄲㄱㅣ}[1]---- <12b,7>
ㅅㄲㄱㅅ[1]------<12b,9>
ㅅㄲㅂ[2]--------<6b,8>

ソヌヒヌ[1]----<20b,4>
ソヌ入ㄱ[1]----<16b,7>
ソヌホ十[1]----<22a,4>
ソヌセ丨[2]----<2b,9>
{ソヒカ}[1]----<23a,1>
ソヒ午[3]------<22a,8>
{ソヒㄱム}[1]--<6a,3>
ソヒヒ[40]-----<2a,1>
ソヒヒ丶[8]----<17b,10>
ソヒ[2]-------<11a,4>
ソカ[1]-------<23a,1>
ソ斗[3]-------<17a,5>
ソ入ㄱ[1]------<8b,6>
ソレㄱ[1]------<22a,3>
ソ乙[1]-------<18a,6>
ソ乙土[1]------<序b,6>
ソ丶ㄱム[5]----<10a,1>
ソ丶ム[1]------<24b,4>
{ソリヒ}[1]----<12b,4>
ソリオ丨[1]----<1a,6>
ソリ五[1]------<11b,10>
ソク[24]------<1a,9>
ソア[24]------<1b,8>
{ソ氵}[1]------<4b,1>
{ソへカ}[1]----<11a,2>
ソへム[2]------<序a,2>
ソニヒ[18]-----<1a,4>
ソニ丨[8]------<1a,3>
ソニ分[2]------<序b,3>
ソヌ冖[1]--------<23a,10>
{ソヌ入ヌ}[1]----<16b,1>
ソヌ丶[12]-------<2a,4>
ソヒ[110]--------<1b,10>
ソヒ丶[61]-------<1b,5>
ソヒㄱ[3]--------<1b,8>
ソヒヌ[1]--------<10a,7>
ソヒヒ丨[2]------<20a,2>
ソヒ丨[36]-------<1a,8>
ソカ入ㄱ[2]------<8b,7>
ソカ丨[17]-------<1b,7>
ソ斗丨[73]-------<1a,4>
ソ入ヒ[2]--------<20a,8>
ソレ土ㄱ[2]------<14a,5>
ソ乙丶ㄱ[1]------<23a,2>
ソ丶[11]--------<3b,9>
ソ丶大[14]-------<1b,2>
ソリ[3]---------<4a,10>
ソリ丶[19]------<1a,5>
ソリ午[2]--------<8b,7>
ソ分[6]---------<序a,5>
ソクち[1]--------<2a,8>
ソ面[1]---------<15b,10>
ソへ[7]---------<序b,3>
ソへ土[1]--------<序b,8>
{ソニロ}[1]------<16b,8>
ソニヒ丶[5]------<9a,1>
ソニ大[1]--------<17b,2>
ソ氵[186]--------<序a,5>

ソ氵ㄱ[1]------<24a,1>
ソ氵ヒ[1]------<15a,2>
{ソ氵丶}[1]---- <16a,9>
ソ氵氵[7]------<序a,6>
ソ氵ユヒ午[1]-- <20a,6>
ソユヒ午广ㄱ[1]-<6b,6>
ソユし[1]------<22a,5>
ソ氵ヒ午[3]------ <22a,2>
ソ氵刀[8]--------<10b,5>
ソ氵七丨[4]------ <20a,7>
ソ氵ニヒ午[1]---- <11a,4>
{ソ氵ユ七丨}[1]---<6a,4>
ソユ刀[1]--------<11a,7>
ソユ七丨[4]------ <2a,6>

② 後代吐

ム入ㄱ[1]----- <7a,2>
ㄱ[2]---------- <5b,7>
{又丨}[4]------<2b,3>
し[4]---------- <3a,9>
{丶ソ斗丨}[1]-- <4b,4>
{丶ソ氵乀了}[1]-<6a,6>
七[1]---------- <6b,3>
氵[9]---------- <3a,1>
{氵叱}[1]----- <7b,1>
{オヒト}[1]---- <4b,9>
{今ヒ}[1]------<5b,6>
{午ㄱ}[1]------<3a,4>
乀[13]--------- <12a,3>
{ノヒ}[1]------<6a,7>
{ノ丶}[1]------<3a,10>
{ソロ}[2]------<2b,3>
ソ又ヒ[1]----- <5a,1>
ソヒ[10]------ <3b,2>
{ソヒ丶}[3]---- <2a,8>
{ソヒヒ}[2]---- <6a,5>
{ム し}[1]-------- <3a,5>
又[3]---------- <3b,7>
{ヒ}[1]----------<3a,7>
{乙}[1]----------<4b,8>
{丶ソニヒ}[1]-----<21a,5>
刂午[1]--------- <5a,1>
氵[1]---------- <5b,7>
{氵ㄱ}[2]--------<12a,1>
{オヒ}[3]--------<4a,3>
オ丨[1]--------- <2b,10>
{今丨}[2]--------<4b,3>
{ラ}[1]----------<8b,6>
{乀又丨}[1]------ <7a,1>
{ノム}[1]--------<2b,2>
ヲ[1]---------- <4a,8>
{ソ乃}[1]--------<6b,4>
ソ又叱丨[1]------<5b,5>
{ソヒㄱ}[1]------ <1b,8>
{ソヒ又}[1]------ <11b,1>
ソヒヒ丶[1]------<2b,9>

ソ丨丨[1]----- <2b,3>
ソ丩[1]------- <3b,2>
{ソ入ㄱ}[1]---- <8b,7>
ソ尸[4]------- <4a,1>
ソ氵[7]------- <2b,1>
ソカ入ㄱ[1]------ <11a,7>
{ソ丩丨}[9]------ <3a,7>
{ソリ丶}[3]------ <3b,10>
{ソ乀ヒ丶}[1]---- <2a,10>
{ソ氵氵}[1]------ <5b,5>